

연중 제30주일
(전교주일)

기도서 464면 (C해)

제1독서: 집회 35, 12-13, 16-18

제2독서: 디모 후 4, 6-8, 16-18

복음: 루 가 18, 9-14

숲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0041 • 0042 • 0043

복음전파의 사명

김종길 신부



언젠가 우리가 단장님한테 레지오에서 신자 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맞이하여 레지오 활동의 초점을 전교에 맞추고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실현하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본당에서는 선교분과위원회의 연중 사업계획 중에 일신자 일인 전교라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본당에서는 전교 서약서를 사용하여 자기가 전교할 대상자를 밝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정한 기도를 매일 바친다는 서약을 받고 실시중에 있다고 들었다.

이런 방법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구체적인 일환일 것이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과 기적과 행동으로써 가르쳐 주신 것이며,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남겨주신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 15) 사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 8)해야 한다. 또한 제자들도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마르 16, 20a)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찾아 다니면서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모범적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영향을 주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두 가지 방법을 분리시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전교자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우촌을 이루어 갔던 것도 두 가지 방법을 분리시키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첫째로 반성해 볼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이며, 둘째로 반성해 볼 것은 좋은 표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감명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이다. 오늘 복음에서도 하느님께서 절손한 사람의 기도를 칭찬하셨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겠다.

(숲정이 주임신부)



1,000만원과 200만원

1. 문병을 기화로 뇌물이 전달되었다 해서 말썽이 일고 있다. 병이 깨끗이 다 나기를 비는(祈 快癒) 마음으로 전달된 액수가 무려 1,000만원이라니,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좋은 뜻으로가 아닌, 음흉스런 잔꾀가 숨어 있다 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병명만 해도 그렇다. 하루라도 쉬면 식구들과 식탁을 함께 할 수가 없는 소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낱말이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맥이 빠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거기다가 부정하게 주어진 주급(週給)이 200만원이라니, 이전 또 무슨 소리가! 200만원이면 도시 근로자 여러 명의 한 달치 봉급이다. 이런 부정한 뒷거래가 정기적으로 있었다니, 그간 감독자들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하기가 장관까지도 개입된 사건들이 터지고 보니 어디에 다 대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말인가! 한 마디로 우리의 부재다.

2. 최근에는 유달라도 사건과 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경제사고는 연속 안타를 치고 있어 돈에 대한 느낌이 무더어질 정도다. 겉으로 두드러지게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세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대기업들의 은밀한 내막을 종합하면, 이 땅의 부(富, 경제적인 주권)가 몇 사람 손에 달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시민들은 자꾸 위축되고 있다.

3. 집안에 어수선한 일들이 계속 터지면 나름대로 대책이 강구된다. 자신을 되돌아 보아 뉘우치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이들도 있다. 옛 어른들은 부덕(不德)을 탓하며 가슴을 치고 절손을 보이는 지혜를 보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비우고 솔직해지는 일이다. 절손하게 부덕을 고백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일이다.

숲정이 산책



전교합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전교 주일 메시지 요약

존경하올 형제들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1. 성년의 정신은 선교 정신

구원의 특별 성년을 지내고 있는 금년의 전교 주일은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년은 회개와 화해에 대한 강력한 촉구이며, 더욱더 세례의 은총을 깨달으라는 호소입니다. 또한 성년은 모든 인간을 위한 구속과 구원의 선포, 곧 복음을 기꺼이 따르라는 호소입니다. 성년은 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호소입니다. 즉 해골산의 구원 희생 이후 195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고통과 기쁨 속에서 구세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라는 호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년의 정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선교 정신에 몰입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가슴속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 “무한히 자비로우신” 그분 성심의 풍요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들 모두를 향하여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선교는 가장 위대한 인간 봉사

그러므로 금년의 전교주일은 특별 성년의 신학적 사목적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기는 바입니다. “그리스도께 문을 여십시오. 더욱 활짝 열어젖히십시오.” 우리 구세주께 다가갑시다. 모든 인간들에게 그분을 전함시다. 선교를 위한 기도로서 간청하여 얻는 성령의 강렬한 힘으로써 구세주를 전함시다. 십자가의 위대한 희생에 비록 하찮고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들이 나날이 겪는 고통을 일치시켜 그리스도를 전함시다. 그러면 그 작은 고통들을 값지게 갚아 주시고 거기에 우리 형제들을 위한 구원의 힘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3. 협력,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본인은 모든 신자들이 위대한 ‘선교협력’ 운동에 참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선교 협력의 절제적인 필요성을 완전히 인식하게 되려면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부터 반드시 선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 법전은 제 2권의 한 부분(교회법 제 781~792조)을 온전히 선교 활동에 할애하여, 모든 신자들이 교회의 본질적 선교 사명에서 유래하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여 각자 그 역량에 따라 복음화 과업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성년, 희망에의 초대

본인은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위협으로 가득 차 있으나 또한 희망을 기약해주는 이때에,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든 역량이 발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성년에서 새로운 정신적 힘을 이끌어내어, 지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널리, 보다 깊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들의 사명

1. 전교주일이란?

해마다 10월, 연례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전교주일은 교황 바오 6세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하느님 백성 안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전교의식을 더욱 형성하여 전교성소를 일깨울 뿐만 아니라 영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전 교회적인 차원에서 전교활동의 협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창설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교회의 선교성명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교회는 선교를 근본 사명으로 삼고 있다(선교 교령 2). 따라서 신자들은 누구나 신앙을 전파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교회헌장 17). 더구나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당신의 새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바로 복음 선포를 위한 곳이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사로서 은총을 베풀고 미사성제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사역을 영속시키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3. 선교는 우리의 사명

전교의 사명은 성직자나 전교사에게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모두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이다(마태 28,19). 따라서 신자들은 자기 처지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빛을 다해야 한다.

4.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① 신자들의 좋은 표양—두터운 신앙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로 헌신하는 신자들의 생활 표양은 선교의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② 설교—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전하는 설교는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듣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③ 교리교육—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온 기본적 교리와 살아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④ 홍보수단—현대의 사회홍보 수단도 선교에 이용하여 효과적이고 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 접촉—가장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이 방법은 자기의 신앙체험을 다른 이에게 전함으로써 선교하는 것이다.

⑥ 성사생활의 역할—선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영원생명의 표현은 성사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형식적이 아닌 생활화된 성사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⑦ 사도적 활동에의 참여—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나름대로 사도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⑧ 기도생활—선교가 기도로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핵심이 빠져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도생활 그 자체가 곧 복음화 행위라 할 수 있다.

가을맞이 관광
(설악산·제주도)

전 일 관광

☎ 6-6666~8
조(안토니오) 선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주집!

금 보 장

장(방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걸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소사이터리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NEW MARK  한 마

신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④4451
주인 유 율리안나

 챌 린 저 주 니 어 북

□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 확정에 따른 감사미사 봉헌

한국 순교 복자 103위의 시성이 확정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지난 83년 9월 27일 개최된 시성 확정을 위한 추기경 회의(consistorium)에서 한국 순교 복자 103위의 시성을 최종 승인하셨다. 다만 시성지의 시기와 장소는 앞으로 로마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게 될 것이다. 시성 확정지 소식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영광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순교자들의 빛나는 열을 본받고자 하는 결의를 새롭게 다짐해야겠다.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께서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감사하는 뜻으로 각 본당, 기관, 단체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미사를 봉헌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행가 특별 세미나 안내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협의회에서는 오는 11월 7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서울 가톨릭 의과대학 강당에서 빌링스법의 창시자 존 빌링스 박사를 초빙하여 “크리스찬 가정과 인간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세미나를 갖습니다.

이어서 후속 세미나로 11월 8일~9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직자 및 수도자를 위한 가정사목 세미나가 서울 돈암동 상지회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특별히 성직자, 수도자를 위한 세미나에 많은 신부님, 수녀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의 참가비는 교구 행사에서 부담합니다. 참가하실 분은 교구 행복한 가정운동 본부(전화 ③5098)로 24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친선 체육대회

전북대·원대 가톨릭 학생회는 연합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모임으로 선배님과 회원들을 모시고 친선 체육대회를 갖기로 했다. 선배님과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대상 : 전북대·원대 가톨릭 학생회 회원(졸업하신 선배님들 포함).
일시 : 83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 전북대학교 대·소 운동장
회비 : 1,500원 주최 : 전북대·원대 가톨릭 학생회

주님을 부르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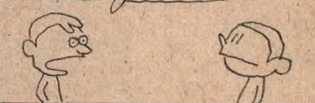
강 아 비 타

나는 어느 가을 날 오후
한 조각 노을도 없이
빈 하늘가에 매달아 두었던
소망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나는, 그 소리를 들었네
그 소리
가난한 사람을 부르는 소리
눈물로 상처난 사람을 부르는 소리
외로운 사람을 부르는 소리
서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소리
이 모든 소리를 나는 들었네
그 사랑의 눈빛 때문에
나의 온몸과 영혼까지도 타오르고 있었고
그 긴 팔이 모든 이의 손에 닿아 있음

나는 보았네
주님이 부르는 소리
나는 알았네
어디서 오는지를
그 소리 내 가슴 실뿌리 밑에서 오고
언제나 발자욱 없이 무언으로 오심을
그 소리
어찌서 오시는지 나는 그 후에 알았네
배부른 사람 나누어 주고
행복한 사람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사람 나누어 주라고
성당의 종소리가
오늘처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있네.

요십이(533) 김병오

비마선론은 왜 아웅산사건을
속시원하게 발표못할까?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하니
언론의 자유가 없어서...



최기식신부의 초청강연은
왜 무기연기했을까?



그이유도...



+

謹 吊

김후상(바오로)신부님
선 증

영결 미사

때 : 83. 10. 22. 10시30분
곳 : 중 앙 성 당

주여, 사제에게 길이
평안함을 주소서.

1톤 이삿짐 및 소화물운송
주·야간 호출 운행

다가용달사

국가유공자 우대 정책에 따
라 용달업 신규면허를 얻어
지난 8월 20일 개업

☎ 6-6565 2-9908
위치 : 다가동 황외과에서
완산교 중간
대표 : 유 남 기
상무 : 박대규(발라바)

〈정성과 봉사〉

금, 은, 보석, 시계

금진당

전주백화점 1층 52호

☎ ⑤ 5 5 0 6

정 논 지 노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협상 인화기 신설

미영칼라현상소

☎ ③ 3651·9286

전주시 중양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데레사(금순)

☎ ① 9206 · ③ 528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 **축! 건진 및 사제관 낙성식**: 주현동 성당(23일)
1. 제7차 L·M 연수회: 23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터, 2천5백원, 강사-오 기선 신부
 2. 가정법원 개원일: 24일 오전, 장소-교구청
 3. 200주년 기념 제4차 교구 사목회의: 25일, 가톨릭 센터
 4. 사제 평의회: 26일, 오전 10시30분
 5. 꼬미씨음 회의: 매월 3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푸리아 간부
 6. 6지구 체육대회: 23일 오전 10시30분, 장소-한들성당
 7. 평협, 임원연수회 및 임시총회: 29일 오후 4시~30일 오후 4시, 장소-가톨릭 센터
 8. 김제·부안·신태인 꾸르실로 올드레아: 24일 저녁 8시, 장소-김제분당
 9. 성령 새신 봉사자 모임: 27일 오후 7시 30분, 주제-은사문제②
 10. **축! 영명·성 시몬과 성 유다**: 28일-박 중신, 한 봉섭 신부님

(중앙)

전화 ②1711~3

주임 신부	문정환	홍문협
보좌 신부	사도 회장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반희장 단합대회: 27일(목), 장소-왕궁, 10시 출발
 2. 복사단 야유회: 23일(일), 장소-왕궁
 3. 평일미사 독서담당: 찬송하을 정녀 프레시디움
 5. 반모임: 11반
 6. 청년 신심단체 체육대회: 장소-성당, 일시-23일(일) 공식미사 후
 7. 성전 신축 위한 록주기도: 510,727단 봉헌
 8. 신축현금 납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선임(5만원), 서창원·이근례·송정희(각 10만원)
최인의 의탁(20만원), 이순옥(8천원), 유만례(1만원), 익명(30만원), 강정자(5만원), 박덕지(1만원), 전매청 바다의 별(20만원), 박만수(3만원)
납입누계: 81,010,000원
- 지난주 봉헌금: 804,150원 교무금: 471,000원
감사헌금: 김경옥 생일감사(5만원)

(노송동)

신부 ②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용태
보좌 신부	나춘성
사도 회장	이홍재

1. 전교주일: 오늘은 전교주일, 회비를 납부합니다. 성인-년 1천원 이상, 어린이-년 200원 이상
 2. 구역 봉사자 모임: 25일 저녁 7시30분
 3. 구역장 모임: 26일 저녁 7시30분, 빠짐없이 참석
 4.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수납부진으로 분당운영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있음
 5. 유아세례식: 29일(토) 오후 4시
대부모임 모시고 30분 전까지 나오세요
 6. 예비자교리: 일요일-노인 공소반
화요일-오전 9시(부녀반), 8시(직장인반)
- 지난주 봉헌금: 406,190원 교무금: 273,500원

(덕진)

신부(3)2182, 수녀(72)1222, 사무(72)6259

주임 신부	김희정
보좌 신부	정양열
사도 회장	양상열

- ※ 각 분과 단체 8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제출
바람: 10월 말까지
1. 주일학교 소풍: 오늘 9시 출발(구이 수왕사 가는길)
청년연합회 단합대회-오늘 8시30분, 구이~금산사
 2. 성모회 성지순례: 26일 7시 출발(해미-솔피), 점심 지참, 시간 늦지 않게 성당으로 모여 주세요
 3. 까리따스 자모회 월례회의: 11월 1일, 나바위 참가비-2천원
 4. 성심부녀회 월례회의: 11월 3일 사선대(관촌)
 5. 오늘 수녀연합회에서 「특별 도서전시」를 합니다
 6. 차주모임: 진복회, 공식미사 후
 7. 위령의 날 미사안내: 11월 2일 오전 11시
교회표지에서 합동위령미사 봉헌합니다
 8. 각 구역장님 반장님께서는 회의 일정을 24일까지 사무실에 알려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468,910원 교무금: 198,0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군중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30일 공식미사
3. 애병회: 26일(수) 오전 10시
4. 견진자 교리: 10월 23일·30일·11월 6일-공식미사 후 1시간, 견진받으실 분들 꼭 참석(분당신부 지도)
5. 수녀원 신축현금: 1만원-김도현·최정해, 1만5천원-이선자, 5천원-이정석, 익명(1만원 전통신자)
누계-6,213,500원

6. 유아세례: 27일(목) 저녁 7시30분
 7.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정운주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천 건 ②은희영
- 지난주 봉헌금: 497,321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가정방문: 26일-1반, 28일-2반
 2. 주일학교 어린이 소풍: 오늘 9시출발, 장소-송광사
 3. 예비자 교리시간: 매주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주 화 저녁미사 후-청년반
매주 토 오후 5시-중·고생
 4. 차주전례: 독서-①박장훈 ②김배근
- 지난주 봉헌금: 277,620원 교무금: 191,000원

(송정리)

전화 ②7366, 수·유 ②9567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김수길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구역모임: 25일-어은골(19:30분), 27일-진북1동(14:00), 진북2동 2구·태평동(19:30분), 28일-진북2동 7구(14:00), 진북2동 5구·서신동5구(19:30)
 3. 신영세자 첫교백: 11월 1일 오전 10:00·오후 6:30
 4. 예비자 모임: 30일 공식미사 후
 5. 오늘은 전교주일: 특별헌금 있음
 6. 차주전례: 해설-이철수, 독서-선종원·이귀례
기도-강원모·홍성조
- 지난주 봉헌금: 162,481원 교무금: 370,400원

(전동)

신부 ②6208, 사무 ②3222, 수녀 ②8347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박찬길
사도 회장	이종두

1.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1시30분
 2. 성가정회: 11월 1일 12시
 3. 중·고 지도자 및 교리교사 모임: 문의-사무실
 4. 예비자 교리안내: 수·목-저녁미사 후(박찬길 신부)
금-오전 10시30분(김세시리아 수녀)
일-오전 11시(김세시리아 수녀)
 5. 가정방문 일정: 전동·다가동-11월 1일~4일 동교동·서교동-8일~11일 동완산동·서완산동-15일~18일, 풍남동·남노송동-22일~25일, 경원동·중앙동·기타-29일~12월 2일
 6.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김동원 ②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신일균 ②이영희
저녁미사: 해설-김석란, 독서-①최중만 ②김희진
- 지난주 봉헌금: 670,550원 교무금: 474,5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수녀 ②4804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1. 오늘은 전교주일: 많은 분들의 전교회 가입을 권장
보통회원-년 1천원, 특별회원-년 2천원 이상, 어린이 전교회원-100원
 2. 아치에스 행사: 다음주 오후 2시에 있음
레지오 단원 전원과 협조단원까지 참석 바람
 3. 각 분과위원회 예산 제출 바람: 내주까지
아울러 각 단체장들도 각 분과에 예산 제출 바람
 4. 학부모임들은 어린이 미사와 교리에 또한 중고생들도 종교공식미사에 반드시 참석토록 적극 협력 바람
 5. 미사에 꼭 참석합니다: 주일날 참석 못하신 분은 토요일 특별미사에 참석하십시오
 6. 다음주 유아세례: 없습니다
 7. 200주년 기념부채: 각 집에 하나씩 있는지요?
- 지난주 봉헌금: 244,230원 교무금: 241,000원